

[18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오늘밤 한오리 갈댓잎에 몸을 실어 이 아득한 바다 속 창
망(蒼茫)한 물구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누웠나니

생(生)은 갈사록 고달프고 나의 몸들 곳은 아무데도 없다 파
도는 물러와 몸부림치며 바위를 물어뜯고 넘쳐나는데 내 귀가
듣는것은 마즈막 ㉠ 물결소리 먼 해일에 젖어 오는 그 목소리뿐

아픈 가슴을 어찌란 말이나 허공에 던져진것은 나만이 아닌데
하늘에 달이 그렇거니 수많은 별들이 다 그렇거니 이 광대무변
(廣大無邊)한 우주의 한알 모래인 지구의 돌레를 찰랑이는 접시
물 아아 바다여 너 또한 그렇거니

내 오늘 바다 속 한점 바위에 누워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 조지훈, 「묘망」 -

(나)

[A]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운 날은
편안한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

[B] 크낙산 마루턱에 올라서면
세상은 온통 চে멋대로
널려진 바위와 우거진 수풀
너울대는 굴참나뭇잎 사이로
삼팽이 한 마리 지나가고
썩은 나무 등걸 위에서
햇볕 쪼이는 도마뱀
땅과 하늘을 집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저 솔한 나무와 짐승들

[C]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꽃과 벌레들이 부러워
호기롭게 야호 외쳐 보지만
산에는 주인이 없어
㉡ 나그네 목소리만 되돌아올 뿐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
산에는 아무런 중심이 없어
어디서나 멧새들 지저귀는 소리
여울에 섞여 흘러가고
질푸른 숲의 냄새
서늘하게 피어오른다
[D]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 틈에 엮드려 잠잘 수 없고
낙엽과 함께 썩어 버릴 수 없어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
남겨둔 채 떠난다 그리고

[B] 크낙산에서 돌아온 날은
이름없는 작은 산이 되어
집에서 마을에서
다시 태어난다

- 김광규, 「크낙산의 마음」 -

(다)

갑오년 여름, 나는 달촌(達村)에서 예전에 살던 화오촌(花鵝村)의 집으로 이사했다. ㉔ 집이 좁고 낮아 드나들 때마다 머리를 부딪혔다. 이때는 날씨가 무더워 마치 뜨거운 화로에 들어간 것 같았다. 게다가 모기와 파리가 달라붙으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이웃에 사는 이우열(李友說)과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다가 마침내 월송정 숲속에 죽봉(竹棚)을 만들었다. 기둥이 모두 넷인데 셋은 소나무에 걸치고 하나는 나무를 따로 세웠다. ㉕ 가로목도 넷이고 그 위에는 대나무를 깔아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었다. 사방에는 모두 대나무로 난간을 엮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왼쪽에 긴 다리를 만들어 나무로 지탱하고 잔디를 깔아 오르내리기 편하게 했다.

죽봉이 완성되자 이웃 노인들과 보리술을 마시며 축하했다. 그 때부터 매일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지내며 누워 잤다. 항상 술바람 소리가 서늘하여 시원한 기운이 뼈까지 스며들었다. 더위가 힘을 잃어 감히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모기와 파리가 멀리 가서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㉖ 마치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몸이 통쾌하고 즐거웠다.

저 악양루(岳陽樓)와 황학루(黃鶴樓)는 크다면 크고 제운루(濟雲樓)와 낙성루(落星樓)는 높다면 높다. 그렇지만 그 화려한 건물과 환란한 단청은 여러 장인의 재주를 모은 것으로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다. 어찌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하루도 안 되어 완성한 내 죽봉과 같겠는가. ㉗ 어찌 검소하고 소박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납달리 시원한 내 죽봉과 같겠는가. 입안으로 중얼중얼하다가 마침내 배를 내놓고 난간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훌쩍 푸른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손 모아 절하고는 다가와 말했다.

“그대의 죽봉이 좋기는 하지만 그대의 안색이 쾌활하지 않은 듯하니 어째서인가. 아마도 진흙탕에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땅에서 한 자 남짓만 올라와도 통쾌할 것이다. 땅에서 한 자 남짓 올라온 사람의 입장에서 그대의 죽봉이 더욱 통쾌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대의 죽봉이나 땅에서 한 자 남짓 올라온 곳이나 진흙탕과 차이가 없다. 그대는 이 죽봉이 통쾌한 줄만 알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진흙탕과 같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는 작은 것에 얽매어 큰 것을 못 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가 속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으니 슬픈 일이다.

그대의 가슴속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빈 공간도 있다. 누각을 높이 올릴 수도 있고 창문을 활짝 열 수도 있다. 통쾌하기로 말하자면 온 세상을 눈에 담을 수 있고, 높기로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사람과 마주 보고 인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장인이 재주를 부릴 필요도 없이 잠깐 사이에 만들 수 있으니, 올라가 바라보는 즐거움이 이 죽봉에 비할 바 아니다. 소박하고 시원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득실과 영욕, 희로애락 또한 빈 공간 속에서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어찌 이렇게 하

지 않고 한갓 이곳에서 즐거워하는가.”

㉘ 나는 그의 말을 기이하게 여겼으나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다. 소나무 그들은 서늘하고 인적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석양이 산에 내려 맑은 이슬이 옷을 적실 뿐이었다. 나는 일어나 탄식했다.

“월송정의 신령이 내게 가르침을 내린 것이리라.”

마침내 기록하여 죽봉기로 삼는다.

- 이산해, 「죽봉기」 -

18.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② (나)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연쇄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조적인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제목인 ‘묘망’은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는 뜻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세계의 크기를 의미한다.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거대한 세계 속에 놓인 존재로 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우주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재 양상을 깨닫는다.

- ① ‘한오리 갈댓잎에 몸을 실어’ ‘아득한 바다 속 창망한 물구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있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을 거대한 세계 속의 작은 존재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생은 갈사록 고달프고’ ‘몸돌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허공에 던져진것’은 ‘나만이 아’니며 달과 별들도 ‘다 그렇’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을 우주 안의 다른 대상들과 동질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광대무변한 우주’의 일부인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바다를 향해 ‘너 또한 그렇’다고 하는 것에서, 화자가 바다를 크고 넓은 세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의 사념이 지닌 크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20.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B]에서 화자가 한 행동의 계기가 드러난다.
- ② [B]에는 화자가 대상의 현재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을 짐작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③ [C]에서 화자가 인식한 대상의 속성은 [A]에서 화자가 자신에 대해 인식한 내용과 대비된다.
- ④ [D]에는 화자가 자신의 바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 ⑤ [E]에서 나타난 화자의 변화는 [A]에서의 화자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2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외부에서 비롯된 소리이고, ㉡은 화자에게서 비롯된 소리이다.
- ② ㉠은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는 소리이고, ㉡은 화자의 각성을 방해하는 소리이다.
- ③ ㉠은 화자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소리이고, ㉡은 화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소리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추억을 환기하게 하는 소리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다른 대상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소리이다.

2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사한 집의 특성과 날씨로 인해 매우 힘들었음을 나타낸다.
- ② ㉡: 죽봉이 자연물을 재료로 지어졌고 규모가 넉넉함을 드러낸다.
- ③ ㉢: 죽봉에서 느끼는 시원함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 죽봉이 장인이 만든 건축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드러낸다.
- ⑤ ㉢: 노인과의 만남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공간은 본질적 특성에서 나아가 주체의 주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주체는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공간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때 공간은 구체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관념적인 공간일 수도 있다.

- ① (나)에서는 ‘땅과 하늘을 집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나무와 짐승들’을 보며 ‘꽃과 벌레들’을 ‘부러워’하는 것에서, 자연적 삶을 살아가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산의 ‘어디서나’ ‘지저귀는’ ‘뱃새들의 ‘소리’가 ‘여울에 섞여 흘러’간다는 것에서, 산이 서로가 자유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죽봉이 통쾌한 줄만’ 아는 나에게 ‘하늘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진흙탕과 같다’고 말하는 것에서, 동일한 공간도 관점의 차이에 따라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에서는 ‘마음이 무거’워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는 것에서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에서는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다가’ ‘월송정 숲속에 죽봉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새로운 공간의 조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에서는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가도 산에 ‘중심이 없’다는 것에서 구체적 공간의 한계를, (다)에서는 ‘가슴속’의 ‘누각’에 오르면 ‘세상의 득실과 영욕’도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진다는 것에서 관념적 공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구는 내게 했던 말처럼, 그의 그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랑의 실천 운동’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한마디로 그는 소명(召命)을 받은 자였다.

침대에 다시 누여놓은 현구를 숙영이와 원 목사에게 맡겨두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민 박사를 만나러 갔다.

우리가 긴 복도를 걸어가자, 현관 입구에서 전투경찰대원들과 두 노인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들어가겠다, 못 들어간다는 입씨름이었다. 밀짚모자 쓴 콧수염 기른 노인이 어머니를 알아보곤, 문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창길이 할아버지시구먼요, 하고 어머니가 알은체 절을 하며 반겼다. 현구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듯 외양을 보니 산동네 비산동 주민인 듯했다.

“㉠ 아, 글썄 박 선생 면회가 안 된다잖아요. 젊은이들은 그렇다 치구, 노인들 문병까지 왜 막습니까. 면회도 못할 만큼 박 선생이 그렇게 위독한가요?”

“이 사람들이 안 된다면 난들 어찌겠어요. 위독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현구는 위독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 가세요.”

나는 어머니 팔을 끌었다. 구호가 끊긴 바깥으로 나서니 학생들은 피약별 아래, 겹옷이 땀에 흠뻑 젖은 채 가부좌 틀고 앉아 있었다. 침묵시위를 벌이는지 말없이 앉아 있는 그들의 땀에 젖은 모습이, 마치 선정(禪定)에 입한 고행하는 승려들 같았다.

“너들 중에 학생도 있는 것 같구나. 지성인이라 자부한다면 다른 환자들도 생각해달 게 아냐. 여기가 어디 시장바닥인가. 또한 현구 씨도 지금 몸 상태가 아주 나빠. ㉡ 직계가족 이외 일절 접견을 금지하라는 의사의 엄명인데, 이렇게 고향까지 질러대면 그 분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어? 만약 또 구호를 외쳤다면 모조리 연행할 테니 그리 알아!” 뚱뚱한 수사관이 흔쾌하곤 병동 안으로 걸음을 돌렸다.

[중략 줄거리] ‘나’는 현구의 병이 간암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현구가 입원해 있는 병동 앞에서 현구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구는 혼수상태에 빠진다.

“사모님, 갑시다. 어서 나서요! 병원 후문에 봉고를 대기시켜 놓았어요.” 작업복 차림의 젊은이가 동수 엄마에게 외쳤다.

“애들아, 뭐냐? 어, 어디로 가자구?” 다칠세라 현구를 끌어안듯 팔을 벌려 보호하던 어머니가 어마지무해져 말을 더듬었다.

“어머님, 동수 아빠를 비산동 우리 방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싶어요. 동수 아빠는 죄인도 아니고, 그러기에 여기에 갇혀 감시받는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할 수 없어요!” 동수 엄마가 발통 달린 침대를 끌어내며 빠르게 말했다. 단속적으로 여린 숨을 내쉬는 현구를 보는 그네의 눈이 눈물로 빛났다.

“㉢ 그래, 그래야지. 네 말 맞다. 현구는 죄인이 아냐. 동수야, 우리가 앞장서자. 너와 내가 앞장서야 해!”

머느리 말에 어머니도 정신이 번쩍 드는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숙영으로부터 동수를 빼앗아 덩석 등에 업었다.

“할머니, 아빠 정말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동수가 또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 그래, 집으로 가는 거다. 이제는 네가 아빠가 되는 거다. 현구가 못다 한 일을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이제 이 할머니의 막내다!” 어머니가 신들린 듯 외쳤다.

어머니는 그해 겨울 현구를 업고 남행길을 재촉하듯, 꼬부장한 좁은 등판에 김장독 같은 동수를 업고 앞으로 나서며 병실 문을 활짝 열었다. 간수 홍은 어느 사이 몸을 피하고 없었다.

“오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숙영이가 나를 보고 물었다.

“㉔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이렇게 된걸. 자, 우리도 나가자.”

숙영의 말에 어리벙벙해졌던 나는 홀연히 정신을 차렸다. 나는 누이 등을 밀었다.

“앞쪽은 안 돼요. 뒷문 쪽으로, 어서!” 하더니, 숙영이도 걸음을 한 듯 어머니 뒤를 따라갔다.

저물한 속에 복도는 벌써 최루탄 내용으로 매캐했다. 바깥들은 매연이 자욱했고 난장판 소요가 계속되고 있었다.

동수 엄마가 침대를 앞에서 당기고, 젊은이들은 침대를 옆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었다. 복도로 나서니 어둑발이 내리는 속에 현구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다. 나는 초조했다. 언뜻 한 가지 결단이 전류처럼 머리를 때렸다. 이제 현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신이 들어앉아 살아 숨 쉴 감옥 한 칸을 짓기 시작했다는 깨달음이었다. 나는 비로소 현구를 거주제한구역 안에서 운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이번 사건의 상징성이 말해주듯, 설령 ㉕ 비산동 사글세발까지 현구를 데려갈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숨 쉬고 있을 동안만이라도 그를 감시받는 ㉖ 병실이 아닌, 자유로운 구역까지 내보낼 책임이 나에게도 있음을 알았다. 나는 동수 엄마와 나란히 침대머리 손잡이를 힘주어 잡았다.

최루탄 내용이 들어찬 복도로, 침대가 좌르르 굴러 갔다. 동수를 업은 어머니와 어머니 뒤편에 팔을 두른 숙영이는 ㉗ 뒷문을 향해 저만큼 앞장서서 종종걸음을 치고 있었다. 그때, 뒷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지 젊은이 몇이 그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막혔던 통로가 자유로 향한 출구처럼 환하게 뚫렸다. 어머니와 함께 우리 오누이 셋이 그해 겨울 그렇게 남행길을 재촉했듯, 우리들은 마치 포연을 뚫고 진군하듯, 최루탄 매연을 헤쳐 침대를 끌고 발은걸음을 걸었다. 그제서야 사일구 그날, 우리 모두 어깨 견고 경무대를 향해 내닫던 그 벽찬 흥분이 되살아남을 나는 가슴 뿌듯히 느낄 수 있었다.

- 김원일, 「마음의 감옥」 -

24.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액자식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 ③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계절의 변화에 대한 묘사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25. ㉔~㉗과 관련하여 밑줄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구의 가족들은 현구의 제안에 따라 현구를 ㉔로 이동시키려 하고 있다.
- ② 젊은이들은 현구의 가족들이 안전을 위해 ㉕에 계속 머무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 ③ 어머니는 동수를 업고 ㉖로 가는 것에 위험을 느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④ 동수 엄마는 ㉖보다 ㉔가 현구를 진정으로 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숙영이는 현구를 ㉕에서 ㉖로 이동시키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26. ㉔~㉗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현구 어머니의 행위가 불합리함을 질타하며 현구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다.
- ② ㉕: 학생들의 행동이 유발할 부정적 결과를 환기하며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㉖: 동수 엄마의 의견에 동조하며 동수에게 함께 하고 싶은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 ④ ㉗: 동수의 질문에 답변하며 동수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⑤ ㉘: 숙영이에게 상황의 불가피함을 언급하며 행동에 동참하기를 권유하고 있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마음의 감옥」은 이타적 삶을 살아온 동생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인물의 모습을 그린다.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구속된 동생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옮겨진 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저항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물은 동생의 삶이 지닌 영향력을 깨닫고, 옳다고 여기는 일에 대한 신념을 갖고 행동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 ①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현구를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한 것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한 이타적 삶을 산 동생의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② 퇴약별 아래에 말없이 앉아 땀에 젖어 있는 학생들을 보고 고행하는 것 같다고 여긴 것에서, 동생에 대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인물의 생각을 찾을 수 있군.
- ③ 어둑발이 내리는 속에 현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초조해 한 것에서, 건강이 악화된 동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④ 현구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들어앉아 살아 숨 쉴 감옥 한 칸을 지었다는 것에서, 동생의 삶이 지닌 영향력을 깨닫게 된 인물의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⑤ 어깨 견고 경무대를 향해 내닫던 때를 기억하며 벽찬 흥분이 되살아남을 뿌듯하게 느낀 것에서, 옳다고 여기는 일에 대한 신념을 갖고 행동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인물의 모습을 찾을 수 있군.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헌사한 조화옹이 산천을 빗어낼 때
 낙은암 깊은 골을 날 위하여 만드시니
봉우리도 뺄어나고 경치도 뛰어나다
 어와 주인옹이 명리(名利)에 뜻이 없어
진세(塵世)를 하직하고 산속에 깃들이니
 내 생애 담백한들 내 분수이니 관계하랴
 농환재 맑은 창가에서 주역(周易)을 점검하니
 소장진퇴(消長進退)*는 성인의 밝은 가르침이요
 낙천지명(樂天知命)*은 성인의 깊은 경계로다
 (중략)

주육(酒肉)에 빠진 분들 부귀를 자랑 마오
 여름날 더운 길의 홍진간(紅塵間)에 분주하며
 겨울밤 추운 새벽에 **대루원*에 서성**이니
 자네는 좋다하나 내 보기엔 괴롭구나
 어저 **내 신세**를 내 이르니 자네 듣소
 삼복에 날 더우면 백우선* 높이 들고
 바람 부는 창가에 기대 다리 펴고 누웠으니
 편안한 이 거동을 그 누가 겨룰조나
 동지 밤 눈 온 후에 더운 방에 이불 덮고
 목침을 돋워 베고 ㉠ **해 돈도록 잠을 자**니
 편함도 편할시고 고단함이 있을조나
삼공(三公)이 귀하다 하나 나는 아니 바꾸리라
 값을 쳐 비기려면 만금인들 당할조나
 보리밥 맛들이니 팔진미를 부러워하며
 현 배웃 알맞으니 비단 가져 무엇 할꼬

- 남도진, 「낙은별곡」 -

* 소장진퇴: 세상사가 변화하는 이치를 가리키는 말.
 * 낙천지명: 천명을 깨닫아 즐기면서 자연의 섭리를 따름.
 * 대루원: 이른 아침에 대궐로 들어갈 사람이 대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곳.
 * 백우선: 새의 흰 깃으로 만든 부채.

(나)

허천강* 건너편에 나날 뵈는 저 **봉화(烽火)야**
 차차 전하여 **목멱산***에 닿았나니
 내 집이 그 아래 있으니 편한 소식 전할조나 <1수>

가시울 에운* 곳에 고향 멀기 잘 하였데
 만일 **가깝**던들 **생각이 더**할러니
 차라리 바라도 못 보니 잊을 날이 있어라 <4수>

백옥 난간 들렀는 데 오색 선화 피었어라
 옛 신하 모두 모셔 일당어수* 즐기던고
 매일에 이런 꿈 꿀적이면 ㉡ **밤낮 자려 하노라** <9수>

두렷한 밝은 달이 천지에 가득하여
 밤이 낮이 되어 어두운 곳 없었는데
 어디서 **떠가는 구름**은 가리우려 하나니 <11수>

- 윤양래, 「갑극만영」 -

* 허천강: 개마고원을 지나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강.
 * 목멱산: 서울 남산의 옛 이름.
 * 가시울 에운: 가시울타리 둘러싼.
 * 일당어수: 물고기와 물이 한데 모임. 임금과 신하가 화합함을 이르는 말.

2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명이, ㉡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후회가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일상을 만끽하고 있는 여유로움이, ㉡에는 바라는 바에 대한 간절함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체념이, ㉡에는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 ㉡에는 지시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에는 경험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에는 이전과 다르게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정서가 드러나 있다. (가)에서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의 은거를 선택한 작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변방에 유배를 간 작가가 고향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면서 임금을 달에 비유하여 연군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봉우리도 뺄어나고 경치도 뛰어나’ ‘산속에 깃들’었다는 것을 통해 자연에 은거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에서 ‘주인옹이 명리에 뜻이 없어’서 ‘진세를 하직’했다는 것을 통해 세속적 가치에 욕심이 없어 스스로 속세를 떠난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의 <11수>에서 ‘두렷한 밝은 달’을 ‘떠가는 구름’이 가리려 한다는 것을 통해 작가가 자연물을 활용하여 임금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가)에서 ‘대루원에 서성’하는 사람에게 ‘내 신세’를 이르는 것을 통해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나)의 <1수>에서 ‘허천강 건너편’의 ‘봉화’를 보며 ‘목멱산’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작가의 현재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가)에서 ‘삼공이 귀하다 하나 나는 아니 바꾸’겠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편안한 삶에 대한 작가의 만족감을, (나)의 <4수>에서 ‘가시울 에운 곳’에서 고향이 ‘가깝’다면 ‘생각이 더’했으리라는 것을 통해 고향을 떠나온 작가의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녹운은 위연청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실망하고 놀랐다. 위연청이 물러가고 위지덕이 나간 사이에 녹운이 왕소삼을 꾸짖었다. “너는 어찌 허황된 말로 나를 속이는가? 네가 그 집에 가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위연청이 편안히 돌아오고 강도감이 나왔다니 이는 또 무슨 일인가?”

왕소삼도 이상하게 생각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니 위연청이 강도감 집에서 귀신을 쫓아 살리고, 상량문을 지어 모든 선비들을 압도한 후 천금도 거절했다는 말을 들었다. 원래 상공자와 여러 사람들이 경화관에 가서 위연청을 찾다가 순무사가 오는 바람에 성 안이 복잡하여 그만두었다. 왕소삼이 자세히 듣고 돌아와 급히 전하니 녹운이 크게 놀라고 기회를 보아 위지덕에게 말하였다. “위연청이 평산당 상량문을 짓고, 천금의 사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색하지 않고 또, 보여 주지도 않으니 이것이 자식 된 도리입니까?”

위지덕이 천금이라는 두 마디에 눈에 불이 일어 급히 위연청을 불렀다.

“들으니 네가 무슨 글을 짓고 천금을 얻었다고 하는구나. 헛되이 허비하지 말고 이자를 쳐서 없애지지 않게 하라.”

위연청이 알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미 들었음을 알고 녹운의 ㉠ 참소임을 깨달았다. 이에 큰 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며 불행히 생각하나 어찌 알고 묻는 일을 숨기겠는가? 편안히 답하였다. “실제로 제가 강도감을 문병한 후 돌아오는 길에 평산당 낙성연을 구경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상량문을 조르는 바람에 급히 글을 써 주니 천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글을 짓더라도 값을 받는 것이 아닌 법입니다. 게다가 여러 선비들이 시기 하기에 거절하고 즉시 돌아왔습니다.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지덕이 미처 말하기도 전에 녹운이 냉소하며 말하였다.

“글을 지어 주고 받는 사례는 왕발과 사마상여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대가 비록 청렴하다고 해도 어찌 물리쳤겠소? 이는 감추었다가 자기 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리라.”

위지덕이 크게 노하자 위연청이 엄숙히 정색하며 말하였다.

“서모께서는 말을 함부로 하여 체면을 차리지 않으시는군요. 내 비록 못났으나 재물을 개인적으로 축적하여 아버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서모의 소임이 이런 일까지 참견하는 것이 아님을 어찌 생각하지 않습니까?”

녹운이 크게 비참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위지덕의 도움을 받고자 말하였다.

㉡ 청이 우연히 말을 하였다가 이런 편찬을 받으니 이는 모두 영감님이 너그러운 탓입니다.”

위연청이 어이가 없어 다시 말을 하지 않았다. 위지덕은 녹운의 거동을 보고는 위연청이 재물을 감추어 놓고는 녹운에게 역정을 내어 책망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상을 밀치며 크게 욕하였다.

“나쁜 놈이 갈수록 못 되어, 천금을 감추고 청렴한 척하며 서모를 질책하고 아비에게 역정을 내니 이것이 자식 된 도리냐?”

위연청이 당 아래로 내려가 죄를 청하며 말하였다.

“아버님의 가르침을 제가 몸에 새기지 못하였으니 감히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재물을 숨기고 아버님을 속이는 것은 금수나 할 것입니다. 제가 비록 불초무상하오나 그런 것은 차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는 것을 거절한 죄를 청합니다.”

위지덕이 더욱 화를 내었다.

“받아 감추는 것은 오히려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는 것을 사양하는 것은 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다.”

[중략 줄거리] 녹운은 재산을 도둑질해 도망가고, 위지덕은 중병에 걸리지만 위연청의 노력으로 병이 낫자 이를 계기로 개과천신한다. 이후 마을에 화재가 일어나고 위연청은 양주 자사에게 편지를 보낸다.

자사가 크게 놀라고 기뻐하나 한편으로는 의심하여 유한을 불러 물었다.

“이것은 위연청의 뜻일 것이다. 정말로 위지덕이 쓴 것이냐?”

유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위연청 어른은 친척을 찾아 수일 전에 나가 오늘 밤에나 오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큰 어른께서 스스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금과 은 그리고 곡식 등을 옮기고자 명령을 기다리옵니다. 저희 집에서 직접 백성을 도와주는 것이 예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큰 어른께서는 관청의 쓰임에 보태어 천자께서 백성의 환란을 살피시는 근심을 덜고 자사 어른께서 환란 때문에 잠자리를 잊고 음식을 끓으시는 염려를 없게 하시기 위하여 관청으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양주 자사가 탄복하며 말했다.

㉢ 위지덕의 여진 마음과 재주를 본받아 위연청이 낮음을 깨달았다. 과거 더럽게 재물을 모은 것은 원래 이런 큰 계책이 있기 때문이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위지덕을 헐뜯는 말은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고 조개를 던져 바다를 측량함과 같구나.”

이에 친히 경화관으로 가 많은 백성을 불러 위지덕의 은덕을 말해 주었다. 유한 형제가 그 형세의 궁박함과 식구의 다소를 따져 나누어 주니 각 집마다 은자 오십 냥이요, 미곡이 십여 석이요, 비단이 두어 필이라. 이만하면 급한 밀천으로는 넉넉한지라. 백성이 기뻐하며 손을 모아 은혜에 감사하며 물러가 집을 수리하고 주위와 배고픔을 구하니 그 선을 쌓음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이 일은 위연청이 화제를 보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올린 것이었다. 위지덕은 복을 받아 훌륭한 아들을 둔 것을 알고 있었다. 재물을 아끼지 않을 때는 목숨처럼 아끼더니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는 재물을 지푸라기같이 여겨 쾌활하니 얼마다 듣고 따라 털끝만큼도 늦춤이 없었다. 위연청이 여러 창고를 점검하니 보물은 녹운이 태반이나 도둑질해 갔으니 남은 금은과 비단은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양주 관아 창고가 어찌 미치지겠는가. 위지덕 창고의 재산이 산과 같으니 오로지 다 다른 사람의 피와 기쁨을 굶어 거둔 것이었다. 위연청이 재물 보기를 원수같이 하여 옛날 출납을 확인하고 문서를 회계할 때에도 눈길만 주고는 마음에 두지 않아 많고 적음을 모르더니 이날 자세히 헤아리니 탄식이 나왔다. 하나하나 어른께 여쭙었으나 위지덕은 조금도 애석해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 하니 가히 무궁한 복을 받을 만하였고 종래의 죄과를 씻을 만하였다. 위연청이 명을 받고는 유한 형제를 불러 자사를 찾아가 부탁할 일을 일일이 가르치고 편지를 대필한 후 잠깐 다른 고을로 가니 이는 아버지께서 한 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유한이 어찌 그르침이 있으리오.

- 작자 미상, 「보은기우록」 -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의 직접 개입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이 지닌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과거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녹운이 ㉠을 하기 전에 왕소삼에게 묻는 말에서, 위연청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 왕소삼을 질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위연청이 ㉠이 있었음을 깨달은 뒤에 한 생각에서, ㉠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위연청이 ㉠을 들은 위지덕에게 한 말에서, ㉠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녹운이 ㉠을 하고 난 후 위연청에게 한 말에서, 위연청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위연청이 ㉠과 관련하여 녹운에게 한 말에서, 녹운의 언행이 본분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상대의 역할을 언급하며 고마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에서는 인물이 이전에 한 행동의 이유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인물의 지위를 제시하며 자신에 대한 비난에 반박하고 있고, ㉡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받아들이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며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에서는 인물에 대해 생각한 점을 밝히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상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나타내고 있고, ㉡에서는 인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고, ㉡에서는 자신의 깨달음을 근거로 인물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옳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보은기우록」에는 재화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의 축적만을 도모하는 인물과 공동체 속에서 윤리적 삶을 실천하며 효를 중시하는 인물을 통해 형상화된다. 또한, 이 작품은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재화가 도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드러낸다.

- ① 위지덕이 위연청에게 천금을 허비하지 말고 이자를 치라고 말하는 것에서 부를 추구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위지덕이 천금을 거절한 위연청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거역한다고 화를 내는 것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재화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위연청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올려 창고의 재산을 관청으로 보내 쓰이게 한 것에서 공동체를 위해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위지덕이 재물을 아낄 때 목숨과 같이 생각하였다는 것에서 재화가 도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위연청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 양주 자사에게 보낸 것에서 선행의 공을 아버지에게 돌려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